

은은한 향기에 '흠뻑' 낭만 '한가득'

가을은 떠나기 좋은 계절이다.
 밖으로 나가 높은 하늘 아래
 선선한 공기가 들이마시며
 은은한 구절초와
 울긋불긋한 단풍에 취해보고 싶다.
 더욱이 정음에 다양한 축제가 마련되어 있으니
 가을을 즐기기에 금상첨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음시를 떠올리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정음시문화제가 있고
 은은한 향기 맡으며 넘실대는
 구절초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구절초 축제도 마련되어 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가을이다.
 떠나자. 정음으로!



가을의 정령 구절초 '장관'
 구절초 꽃축제, 5일부터
 20일까지 구절초 테마공원서
 특색있는 체험·전시 등 마련
 인생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
 상품 홍보 판매장·푸드트럭 등
 볼거리·먹거리도 다양

으로 꼽힌다. 이번 축제현장에서는 저마다 스마트폰 셔터를 눌러 촬영한 사진을 무료로 인쇄해 제공함으로써 정음방문의 의미도 되새긴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춰도 그림이 되는 곳, 인생 사진을 찍고 싶다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곳이다.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눈앞에 펼쳐진 새하얀 구절초는 코스모스와 핑크블리 등 가을꽃과 함께 낭만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내 가을과 구절초, 지역 향토자원을 테마로 한 각종 이벤트와 체험, 지역 농·특산물 판매행사도 펼쳐진다. 농특산물 장터에서 구매한 볼품은 판매장에서 주차장까지 무료운반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더한다.

음식 장터와 구절초상품 홍보판매장, 먹거리 장터, 푸드트럭 등 볼거리와 먹거리도 다양하다.

또 '국악을 사랑한 비보이', '색소폰 콜라보레이션', '재즈 앙상블' 등 관객과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을 선보인다.

가을의 향기를 잔뜩 머금은 감미로운 재즈선율과 화려하고 역동적인 비보이와 전통 국악이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조화로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구절초의 개화 기간을 최대한 축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년보다 긴 1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휴일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분산시켜 교통체증과 축제현장 혼잡도를 완화해 한층 여유롭고 서정적인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가을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의 '인생 샷' 열풍에는 구절초 바다가 단연 1등 공신

▲다정하게, 넘실넘실... 꽃처럼 고운 남, 남 보리와요

꽃의 물결이 넘실넘실, 바다를 이룬다. 새하얗고 분홍빛을 띠는 구절초다.

가을의 정령 구절초가 장관을 이루면 가을의 절정이 왔음을 알 수 있다.

'제14회 정음 구절초 꽃축제'가 오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구절초 테마공원 일원 열린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출사명소로,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구절초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진한 꽃내음과 화려한 듯 단아한 경치가 가슴을 뛰게 한다.

정음시가 취취하고 정음시 구절초 축제 추진 위원회가 주관하는 구절초 꽃축제는 은어가 노니는 청정한 계곡하천인 추령천과 숲을 배경으로 한 전국 최대의 구절초 군락지(15만㎡)를 배경으로 열린다.

가을의 낭만과 서정을 느끼기에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여기서는 어느 곳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도 작품이다.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아름다움이 있는 구절초 꽃 화원에서 울가을,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가을 정취 들쭉...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행복과 사랑이 피어나다

수확의 계절을 축하하듯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가을 축제가 열린다.

그중에서도 가을 정취를 들쭉 풍기는 정음 구절초 꽃 축제는 매년 가을이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주목하는 곳이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이색적인 풍경을 선보이는 구절초 테마공원은 매년 60만 명 이상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으며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장소로 거듭났다고 평가받고 있다.

올해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과 가을, 몇 차례의 태풍과 장마를 이겨내고 은은하고 수수한 매력의 구절초가 매력을 뽐낸다. 눈에 띄는 화려함보다는 산과 들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함과 수수함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소나무 아래 하얗게 펼쳐진 순백의 구절초는 평범함에 비해 중독성이 강한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실려 오는 구절초 향기는 피곤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꽃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기운을 전해주는 구절초, 옥정호의 물안개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지면서 한 폭의 수채화를 만들어낸다.

▲진한 구절초 향기에 취하는 날... '제14회 정음 구절초 꽃 축제'



2019 개막공연_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
 : 전 세계 관객 명인들과 만나는 바람의 전설, 기원의 노래

판소리다섯바탕
 : 시대를 매혹한 '사제 동행'의 특별한 무대
 이난초X임현빈<수궁가>, 송순섭X이지람<적벽가>, 조동달X유태평양<홍보가>
 김영자X최현주<심청가>, 김명신X정상희<춘향가>

종교음악시리즈1
 : 이베리 콰이어(조지아) Iberi Choir
 조지아 정교회 수도사들이 부르던 다성음악의 울림
 : 전북영산작법보존회(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사자의 영혼을 전도하는 불교 의식, 화려한 춤과 깊이 있는 범패의 송고함

종교음악시리즈2
 : 첼리스트 앙성원 & TIMF 앙상블
 클래식 고전과 현대음악으로 만나는 영성 가득한 기원, 바람, 축복
 : 아랫녘수목재보존회
 고도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영남 지역 불교의 전도 의식

The 18th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

2019. 10.02. - 10.06.
 홈페이지 sorifestival.com
 문의 1577-4052

산조의 밤
 : 관악 대가들의 연주를 중심으로 명창들이 빚어내는 즉흥 시나위 최경만, 원장현, 장문희, 유지숙, 김규형

아트스테이지 소리클러스
 : 더 풍성하고 특별해진 인디 뮤지션들의 매력적인 무대 불빨간 사춘기, 정준일

전북 CBS 별빛콘서트
 : 7080, 90년대를 사로잡은 대중음악 별들의 무대 부활, 정훈희, 홍경민, 박미경, 최성수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전시체험! 어린이소리축제
 : 어린이전시체험 '전방지축 호랑이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환상음악극 리틀뮤지션, 전통인형극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 유래하고 오싹한 캔터빌의 유령, 어린이참여놀이극 오즈를 찾아서

바람,
소리

WISH on the WINDS